서울 교육 희망 찾기 정책협의회 자료

박원순 범민주진보 서울 시장은 교육 복지의 획기적 증진을 위해 어떤 사업에 예산을 투자해야 할까?

* 일 시 : 2011년 10월 7일 18:00~

주최 :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시 교육시민단체

서울 어린이 청소년 교육 복지 혁신 10대 과제

1. 서울시 교육지원 정책 방향

- 서울시 교육력 제고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여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함.
- 21세기 지식 정보 시대는 좋은 교육을 통해 길러진 건강한 시민과 창조적인 인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시대임 - 사람, 교육과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함.
- 보수 진영은 토목과 건설 부문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다면 진보 개혁 진영은 보육과 교육과 복지, 문화 등 사람과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함.
-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에서 보육과 교육 지원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준비하고 중앙정부에 대응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함
- 지금까지는 시청(시장)과 교육청(교육감) 사이가 소원하여 긴밀한 협조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시장과 교육감 사이에 긴밀한 정책적 연대와 협력적 행정이 필요함.

2. 서울시 교육 복지 지원 10대 과제 (예시)

1) 인프라

○ 서울의 '교육 복지 혁신 7개년 계획 : 7-7-7 프로젝트' 수립
- 보육・교육・복지에 매년 1조원씩 7년간 7대 핵심과제에 7조원의 예산을 배정함

○ 교육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조례 개정' - 전출금 비율 취득세의 5%

○ 25개 구청간 교육지원 예산 격차 보전 예산 지원 - 교육경비보조금 차별 해소

○ 구단위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 시민사회, 구청,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네트워크

2) 교육복지, 보육 지원

○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로 학생 건강, 먹거리 복지, 양질의 일자리 동시 확보

○ 보육과 돌봄 인력, 학교 보조교사 등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

○ 구립 어린이집, 공립유치원 등 공보육 시설 확충 및 보육 서비스 차별 해소

○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 안정망 구축(공부방, 365일돌봄안전망, 저소득층 학비지원)f

○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식주, 쉼터와 그룹홈 확대, 일자리 알선, 진로탐색

3) 학교 시설, 학습환경과 교육여건

○ 학교 건물 현대화 7개년 계획 추진 - 최고의 21세기형 학습 환경 제공

○ 열악한 지역에 초중고 혁신학교 벨트(교육혁신 모범 지구) 조성해 교육 격차 해소

○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으로 학교교육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4) 어린이 청소년 문화 예술 지원

○ 모든 청소년 수련관을 '문화・예술・체육 교육 지원 센터'로 개편
○ 청소년 복합 문화센터 설립 - 문화 복지, 휴식 등을 종합 지원
○ '아이들이 건강한 서울 만들기' - 어린이 청소년 건강 증진, 초중고생 무상 의료
○ 어린이 청소년 문화 복지 서비스 확대 - '서울 청소년 희망카드' 추진
○ 서울시 전역에 522개의 '청소년 문화 카페'를 설립 - 복합시설
○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클럽 활동 지원 - 문예체 동호인회 지원
○ 책읽는 서울 만들기 지원 - 학교 독서동아리 지원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 만들기 정책 제안

안승문 / 교육희망넷 정책위원장

1. 세계 속의 한국 교육 - 부끄러운 국제 지표

1) OECD의 국제 교육지표 비교로 볼 때 한국 교육은 후진국 수준

-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에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과밀한 수준

2) 세계 최고의 교육비 부담 - 사부담 공교육비 최고, 연간 사교육비 32조

- 2006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3%(정부부담 4.5%, 민간부담 2.9%)로 OECD 평균 5.8%(정부 4.9%, 민간 0.8%)를 상회
- 교사 1인당 학생수('07)는 초등 25.6명, 중학교 20.5명, 고등학교 16.2명으로 OECD 평균(초등 16.0명, 중학교 13.2명, 고등학교 12.5명)을 상회

3) 최저 수준의 출산률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

-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출산률은 1.19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
- 예비 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자녀 보육과 교육 문제 때문에 출산을 꺼리고 있음

<교육단계별, 기관유형별 학급당 학생 수(2005년)>

구 분	초등학교 단계 (단위 : 명)			중학교 단계 (단위 : 명)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한 국	32.6	32.3	32.6	36.0	34.8	35.7
독 일	22.0	23.1	22.0	24.7	25.8	24.7
미 국	23.6	19.4	23.1	24.9	19.3	24.3
영 국	25.8	10.7	24.2	24.3	18.4/9.2	22.1
이탈리아	18.3	19.1	18.3	20.9	21.4	20.9
일 본	28.3	33.7	28.4	33.4	35.7	33.5
호 주	24.0	24.1	24.0	24.5	25.5	24.9
OECD 평균	21.7	20.1	21.5	23.8	22.7	24.1

■ 주 : 한국 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 공민학교가, 중학교 단계에는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중학교과정)가 각각 포함됨.

■ 출처: OECD(2007),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 서울 교육의 현주소 - 학생들의 성장 환경

1) 차별과 특권 정책의 전면화 - 자율·선택·경쟁을 내세운 차별 교육

- 특목고, 국제고,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등 소수 학교에 편중된 정책을 강행
- 전면적인 일제고사 시행과 결과에 따른 교육청과 학교 줄세우기 정책의 강행 1)
- 고등학교 선택권 확대로 학교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시험 대비 교육이 만연
- 초등생에게 방과 후를, 중학생에게 보충수업을 강요하며 자율적인 학습 기회 박탈

2) 가장 열악한 공교육 환경 - 거대학교와 과밀학급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

- 열악한 학교 환경과 교육여건 - 선진국이나 지방 작은 학교들에 비해 최하위
- 몇몇 이른바 우량 학군 지역의 학교들은 학급당 40명을 넘는 초과밀 상태임
- 인구 과밀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일수록 학교를 지을 적당한 부지가 없음

3) 세계 최고의 사교육 시장 - 외국 자본까지 가세한 사교육의 천국

- 학생과 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한 학원들은 정답 맞추기 교육과 이윤추구에 몰두
- 거대한 외국 자본들이 국내 학원들을 인수 합병하여 거대한 사교육 시장 형성
- 부모의 임금 수준이 사교육 수준을 좌우하고 고입과 대입을 결정하고 있음

4) 어린이 청소년이 소외된 도시 문화 - 폭력적인 성장 환경

- 서울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문화 공간은 절대 부족
- 온라인상에 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자극하고 탈선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즐비함
- 청소년 유동인구 많은 곳은 물론 학교 인근까지 유해 업소들이 즐비한 상황

5) 서울의 학교와 가정에서는 나타나는 퇴행적인 현상들

-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과 과도한 선행학습의 만연
- 독서, 체험, 봉사, 예체능 전인교육이 위축되고 지식 암기 점수따기 교육 횡행
- 교육청간, 학교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제고사 점수 올리기 경쟁
- 학생들의 가정 환경과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기회의 심각한 양극화

6) 오세훈 서울 시장의 예산 운용과 학교 지원

---

1)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 지역의 생활수준 등 온갖 요인들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일제고사 평균 점수를 공개하면서 교육청과 학교를 줄 세우고 있는 행태는 교육학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행태이다. 더구나, 객관식 4(5)지선다형 또는 단답형 문제들로 평가하는 일제고사는 우리 교육을 20세기 교육으로 퇴행시키고 있다.

- 뉴타운, 서울 르네상스 등 전시적인 건축 토목 공사에는 막대한 예산을 배정
- 은행나무를 뽑고 대리석 포장한 광화문 광장은 불요불급한 혈세 낭비 사업의 전형
- 시에 교육관을 두었으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기획은 없었음
- 막대한 토목 건설 예산에 비해 청소년 문화 복지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함
- 학교급식 지원조례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급식 등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

☞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1960~70년대식 지식 암기 교육, 객관식 점수 따기와 정답 맞추기 교육으로는 사고력, 창의력, 의사 소통 능력, 기획능력, 협력적 집단 지성 등 21세기 역량을 함양할 수 없다는 점 - 한국교육은 19~20세기로 거꾸로 가고 있음.**

3. 서울의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삶

1)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받는 서울 학생

- 부유층 자녀들은 과도한 사교육으로, 빈곤층 자녀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고통받음
- 정규수업, 방과후학교, 학원과외, 독서실공부에 쫓겨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움
- 학원 의존형 정답 맞추기식 공부에 길들여져 창의력과 상상력이 고갈되고 있음
- 놀이, 우정, 체육, 문화예술활동, 봉사, 독서, 체험, 인격수양의 기회는 갈수록 줄어듦

2) 보장 없는 미래를 위해 사교육에 매달려야 하는 학부모

- 대다수 부모들은 어떻게든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람
- 자녀 교육은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의 가장 큰 걱정이요 경제적인 부담임
- 극심한 육아부담으로 한 자녀 가정이 많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꺼려하게 되는 상황
- 일부 고학력 중상류층 주부들은 자녀 사교육, 진학을 직접 설계하며 공교육 무력화

4. 시장 선거 승리를 위한 과제 - 청년·여성 집중 설득

- 무한 경쟁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며, 교육복지를 획기적으로 높여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서울시민의 임금을 크게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육아 부담과 교육비 때문에 결혼을 꺼려해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예비 부모인 청년 유권자**들과 자녀 교육 부담을 가장 크게 짊어지는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똑똑한 유권자로 거듭나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임.
- **20~40대 여성과 청년 유권자들이 주도하는 투표 혁명이 교육 혁신의 관건임.**

6. 서울시 교육지원 정책 방향 2)

- 21세기 지식 정보 시대는 좋은 교육을 통해 길러진 건강한 시민과 창조적인 인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시대임 - 사람, 교육과 연구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함.
- 보수 진영은 토목과 건설 부문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다면 진보 개혁 진영은 보육과 교육과 복지, 문화 등 사람과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함.
-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에서 보육과 교육 지원을 위한 그랜드 플랜을 준비하고 중앙정부에 대응 투자를 요구하는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함
- 지금까지는 시청(시장)과 교육청(교육감) 사이가 소원하여 긴밀한 협조가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시장과 교육감 사이에 긴밀한 정책적 연대와 협력적 행정이 필요함.
- 교육감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내용과 방법과 교육의 질을 책임진다면, 시장은 서울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학습 환경을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야 함.

7. 시장-구청장-교육감이 함께 주도하는 교육 혁신 전략

1) 서울시장과 교육감, 구청장들의 전략적 협력 체제 구축

- 친환경 급식, 교육복지 확충 등을 위한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협력

2)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주도하여 「한국 교육 미래 비전 포럼」 개최

- 새로운 시대 교육의 철학과 원칙, 방향과 과제,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를 논의

3) 「서울 교육 혁신 5개년 계획」 수립 - 서울시장과 교육감 공조

- 서울시 학교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교육복지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한 연차계획

4) 전국 시장·도지사협의회와 구청장협의회의 전략적 협력

- 교육혁신을 위해서는 전국의 지자체-교육청이 협력하는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함
- 범민주 진보진영이 집권하고 있는 시도, 시군구가 주도하여 전략적인 협력 시동

---

2) 지금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학교 교육을 내실화, 정상화하겠다는 관점보다는 득표를 위한 정치적 인기몰이의 도구로 간주해 왔음. 그 결과 입시경쟁 열기에 편승한 공립학원 설립, 영어마을 설립, 학원 강사 지원, 명문대 입시반 운영 등 학원식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을 크게 약화시키게 됨.

서울시장의 교육 지원 과제

1. 서울시 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와 과제

1) 교육 지원 재정 지원의 확대와 지역·학교간 차별 시정
2) 1~6세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 - 출발점 평등
3) 모든 학교에서 질 높은 무상 교육을 추진하기로 시장과 교육감이 공조
4) 최고의 21세기형 학습 환경, 교육 여건, 성장 환경을 제공
5)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문화, 복지, 휴식을 제공하는 복합 시설 건립
6) 지자체·학교·대학·기업과 평생교육 기관이 연계된 평생학습 활성화
7)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서울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
※ 시장은 25개 구청장 및 교육감과 힘을 합쳐 전략적 교육투자를 해야 함

2. 서울시의 교육복지 인프라 구축 4대 과제

1) 서울의 '교육 복지 혁신 7개년 계획 : 7-7-7 프로젝트' 수립

-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들이 함께 하는 복지 혁신과 교육 여건 개선 프로젝트임
- 보육·교육·복지에 매년 1조원씩 7년간 7대 핵심과제에 7조원의 예산을 배정함
- 7대 핵심과제는 서울 시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함께 결정함
  (7대 과제의 예시 = △친환경 급식과 먹을거리 복지 확대,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서울 만들기' △보육과 돌봄 인력, 학교 보조교사 등 교육 복지 일자리 창출, △어린이 청소년 건강 증진과 의료보장, △어린이 청소년 문화 복지 서비스 확대 △공공 보육 시설 확충, △학교 건물 개축 등 현대화 등 ……
- 서울의 교육 혁신 프로젝트가 2012 대선 후 국가 프로젝트의 모델이 되도록 함

※ 오세훈의 '한강 르네상스'나 '디자인 서울' 프로젝트를 압도하는 사람 중심 프로젝트
※ 2012 대선 이후 민주진보 정권이 펼칠 국가 교육혁신 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음

2)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개정' - 전출금 비율 상향

- 서울교육혁신 중기계획인 7-7-7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충분한 재원이 필요함
- 본 예산 세입 중 취득세 합산액의 1000분의 50으로 개정(현재는 1000분의 30)
- 교육지원 사업의 효율화와 예산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교육협력국의 전문성 강화

※ 학교 지원을 위한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필요

※ 중앙정부가 학교 교육의 혁신을 위한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도록 견인

3) 25개 구청간 교육지원 예산 보전 지원 - 교육경비보조금 차별 해소

- 구청들 간의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로 학교교육의 차별과 빈부 격차가 극심해 짐
- 부유한 구청은 구 차원의 세수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가난한 구는 별도 지원
- 25개 구의 학생들이 고른 지원을 받도록 예산을 보전해 주어야 함(학생수 비례)

※ 구청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교육복지를 확충하는 데 집중시키는 전략을 수립

※ 참고 : 자치구별 교육 경비보조금지원 격차 현황 자료

4)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상설 협의체 운영 - (가칭)'서울교육복지포럼'

- 모든 어린이 청소년에게 최상의 교육복지를 제공하려면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들이 서울 교육발전 전략이나 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어야 함
- 서울시장, 25개 구청장과 서울시교육감이 함께 하는 교육복지협의회 개최(분기 1회)
- 시장과 구청장, 교육감, 시청과 구청의 교육지원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시의원과 교육의원,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하는 '교육복지 포럼' 추진(연 2회 이상)
- 서울에서 시작된 소통과 협력을 위한 포럼과 네트워크는 전국의 시도에 적극적으로 전파될 수 있고, 국가 수준의 포럼이나 네트워크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임.

3. 민주진보 서울 시장의 전략적 10대 중점 공약

1)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먹거리 복지의 획기적인 증진

-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연차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함
- 급식 질의 획기적인 향상을 위해서 학교 영양사와 조리사 연수 적극 지원
- 서울의 음식점들이 좋은 식재료로 질높은 음식을 제공하도록 질관리 체제 구축
-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를 적정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지원센터' 구축

2)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 혼인 신고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좋은 엄마 아빠 되기 자녀교육 매뉴얼'을 제공
- 출생신고를 하는 부부들에게 독서 교육 지침서와 '북스타트 키트' 제공
- 모든 초등 입학생들에게 '몸 관리・건강관리・먹을거리에 관한 책자(만화) 제공
- 어린이 청소년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과 취약 지역에 경찰(청원경찰) 배치 추진
- 학교마다 학부모・학생이 '학교생협'을 설립해 방과후 클럽, 돌봄, 먹거리 지원

3) 저소득층부터 '아동수당=양육 수당' 지원 및 단계적 확대

- 출산 장려, 보육비 보조 등을 위해서 모든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
- 1~5세 대상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시작해 점차 보편적 복지로 전환
- 둘째, 셋째 등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이 지원되도록 함. 전남 강진 사례 참고

4) 서울시 전역에 522개의 '청소년 문화 카페'를 설립 - 복합시설

- 서울 전체 구청 관내의 522개 행정동에 1개 이상의 청소년 문화카페를 설립함
- 학원을 대신하여 어린이 청소년에게 독서・휴식・돌봄을 지원하는 복합공간
-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저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 독서, 학습, 휴식, 놀이, 문화, 복지, 돌봄, 봉사활동 지원 기능이 결합된 복합시설
-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관할 시설의 공간 재배치, 유휴 공공시설 활용, 임대 건물 등
- 서울시가 구청장에게 대응투자 사업으로 제안하고, 공동 투자를 통해 재원 마련

※ 마포 서강도서관, 핀란드 청소년 센터(Happi, Haukilahti Youth center) 참조

5) 어린이 청소년 방과후 클럽 활동 지원 - 문예체 동호인회 지원

-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원에 가는 대신 취미와 특기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지역 사회의 다양한 동호인들이 어린이 청소년 클럽을 지도・육성할 수 있게 지원
- 스포츠(축구, 테니스, 배드민턴)・문화예술・독서・등산클럽 등 다양한 클럽

- 학교 방과후, 청소년 문화카페,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클럽을 개설해 모집 운영
- 클럽활동 지도자에게는 어린이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특별한 보수교육을 제공

6) 모든 청소년 수련관을 '문화·예술·체육 교육 지원 센터'로 개편

- 청소년 수련관들이 낮에는 여유 있는 주부대상 강좌나 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있음
- 구청마다 거액을 들여서 지은 수련관이 명실상부한 청소년 센터로 활용되어야 함
- 오전부터 초·중학생들이 학급 단위로 수련관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학교가 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교육이나 창의체험, 목공, 실습 등을 집중 지원함
- 수련관 운영에 교사, 교육청 장학사, 복지사,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하도록 권장

7) 서울시 '청소년을 위한 희망카드' 사업 추진 - 청소년에게

- 서울 중고생들에게 문화예술, 공연관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었음
-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서울 시내의 모든 시설들을 무료 관람할 수 있게 하고
- 문화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고궁은 무료로, 공연·영화는 할인 관람할 수 있음
- 카드와 스마트폰(휴대폰)을 연동하여 문화 정보, 학습 정보 등을 제공할 수도 있음
- (가칭)청소년 희망 재단을 설립, 청소년 관련 서비스 개발과 재원 마련을 맡김
- 기본 재정은 서울시가 마련하되, 마사회나 기업 등 공공 또는 민간 후원을 유치

8) 공보육 시설 확충 및 보육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집중 투자

- 구립·시립 어린이집 등 공공 보육 시설 적극 건립, 여유 공공건물을 리모델링
- 사립 어린이집 등이 시설 여건과 보육 서비스 수준을 공립 수준으로 높이게 함
- 모든 보육 시설에 보육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교사 1인당 아동수를 크게 낮춤
- 보육 교사들에게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연수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

9) '아이들이 건강한 서울 만들기' - 유초중고생 건강은 서울시가 책임짐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시가 책임지는 체제 구축
- 비만, 소아 당뇨, 주의력 결핍 등 어린이 청소년의 건강 이상을 사전에 예방 조치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교가 병원 및 보건소와 협력해 건강을 보살피도록 함
- 부모들의 보건의식, 학생들의 자기 건강 관리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전면 실시

10) 최고의 21세기형 학습 환경, 교육 여건, 성장 환경을 제공

- 21세기형 교육 공간,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재건축 리모델링 프로젝트
- 학급당 학생수 25명의 선진국형 학교, 21세기 교실 환경 구축이 목표

-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프로젝트를 세우고 정부와 타시도에 제안해 전국 사업화
- 학교 교육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법 제정 추진

※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계획하되 중앙 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대응 투자를 요구

4. 추가 - 교육보육 지원 정책 과제

1) 어린이 청소년들이 함께 가꾸는 교육 문화 복지 서울 만들기

○ 학생 참여 예산 지원 프로젝트 추진 ------ 학생회장단과 시장의 정례 회의

- 매년 9월에 서울시장과 서울의 각급 학교 학생회장단이 모이는 정례 회의 개최
- 학교 지원을 위한 예산 가운데 일부를 학생회장들의 요구에 따라 집행하는 것임
- 학생회장단은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학교에 특별한 예산 지원을 요청
- 시설 환경 개선 지원이나 학생들이 요청하는 특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도 가능

○ 어린이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문화 서울 만들기 -------- 토요 동아리 한마당

- 서울시의 지하철 역에 많이 있는 널찍한 공간의 벽면에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프로젝트임 : 예술작품을 포함하여 만들기 등 다양한 학습 결과물들을 전시
- 매주 토요일 오후에 서울의 각급 학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학생들이 서울의 지하철 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공간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서울 디자인' 프로젝트

- 아이 기르기 좋은 서울 만들기, 어린이 청소년 친화적인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이 시정이나 구정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함.
- 매년 1회 정도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우리가 만드는 서울'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서울 시정에 어린이 청소년들의 상상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독거노인과 결연 맺기, 독거노인 찾아가기' 봉사활동 활성화

-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룹 또는 학급별로 독거노인들과 결연 맺도록 지원함
-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위로하거나, 도시락 배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에서는 자매결연하여 독거노인 지원하는 데 쓸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

2) 서울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과 인프라를 평생학습 활성화에 투입

○ **서울을 지식정보시대의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선진 도시로**

- 서울시에 사는 모든 성인들의 자기성장을 돕고 삶을 윤택하게 할 평생학습 프로젝트
-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학교도서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대학평생학습원,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을 대대적으로 네트워킹하고 평생학습을 지원함
- 원하는 서울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쿠폰 발행

○ **시청과 구청, 공공기관의 강당이나 여유있는 회의실을 시민에게 개방**

- 서울 시민들의 회의나 독서모임 등 다양한 컨퍼런스를 위한 공간을 제공
- 서울시청이나 구청, 동사무소, 교육청 등에 있는 회의시설이나 강당 등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시민들의 회의나 강좌, 컨퍼런스 등을 위해서 개방하는 프로젝트

○ **퇴임한 전문직들로 서울시 평생학습 지원 자원봉사단 조직 운영**

- 사회 각 분야에서 퇴직한 전문직 종사자들, 교사나 교수들 가운데 평생학습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서울시민과 학생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일하게 함.
- 퇴임한 전문직들이 자신이 가진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강좌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한 '서울 청년 희망 프로젝트' 추진

○ **유치원과 초중학교 방과 후 클럽활동 지원센터 운영 - 청장년 일자리 창출**

- 예체능 클럽활동, 동아리
- 현재의 방과후 활동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지향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 정규수업을 보충하거나 심화 학습하는 학원형에 치중된
- 음악동아리, 예술 활동, 스포츠 클럽, 과학탐구, 독서토론, 게임 디자인 등 다양한 클럽 개설을 지원 : 다양한 활동가를 특별 모집해 일정한 소양교육 후 자격 부여
- 서울시에서 학교 방과후 클럽활동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청 및 구청들과 연계 협력하여 초중고생들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

○ **서울 청년 희망 키우기 프로젝트 지원 사업**

- 적극적인 진로지도와 고용 창출, 취업 지원을 통해 청년 실업자들의 취업을 준비시키고 최대한의 일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한 서울시, 구청, 교육청 합동 프로젝트
- 서울의 모든 미취업 청년들이 저마다 미래 프로젝트를 갖도록 권장하고 지원함
- 비슷한 유형의 미래 프로젝트를 가진 청년들이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면 특별 지원
- 중고등학교와 대학, 산업 현장, 평생학습 기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취업 지원

지역아동센터 공약 요구안

서울 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을 위한 처우개선비

- 현재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평균 급여는 100만원 선
-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평균 근속이 2년 미만임. 교사급여가 중요한 이유임
- 올해, 보육교사(어린이집)의 처우개선비가 국비로 5만원 책정되었음
- 타시도 경남, 부산, 충남, 대전, 제주 등 7개시도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 비용 10~25만원이 지급되고 있음
-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안정되어야함

□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한 지원비(장기 미지원기관을 위한 지원비)

- 현재 국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결정되고 있어, 개소연월에 따라 최소 1년 2개월~2년 동안은 운영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음(급식비만 지원됨)
- 이 예산도 국가예산이 어떻게 확정되어야 하느냐에 따라 최대한 3년까지 길어질 수도 있음
- 운영비 예산은 3(보건복지부):7(서울시)로 집행되는 매칭펀드임
- 양천구의 예로, 양천구는 지역아동센터 개소 6개월이 지나고, 지도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면, 운영비의 일부(120만원)를 정부 운영비가 집행될 때까지 지원함
-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운영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기 바람
  예) 1년 운영후 지자체 지도점검을 성실히 받은 기관은 국가 운영비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 서울시 예산인 7에 해당하는 금액(약 200만원 정도)을 지급할 것을 요청함.
- 현재 2010년 개소기관이 30여개, 2011년 개소기관이 40여개 정도임
- 순차적으로 운영비를 받는 다면 예산상 크게 무리가 없이 집행될 수 있음
- 충남과 부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임

서울시장 10대 공약안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제안 1: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확산

> 학교수업의 정상화, 내실화를 지원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하여,
> 중고생들의 방과후활동 책임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 기대효과

- 학교는 정규수업을,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학생활동을 책임지는 교육에 대한 전면적 전환기를 구축한다.
- 극심한 입시경쟁교육으로 인해 지친 학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각자가 원하는 삶의 길을 모색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방과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킨다.
- 방과후활동의 강화로 인해 부실화되어가는 정규수업이 내실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
- 서울시가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방과후 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함으로써 창출된 모범 전형을 학교 및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 아동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인력을 대거 고용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아동,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활동에 능력과 의지를 가진 서울시민들의 재능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서울시를 만들어가는 데에 기여한다.

현황 : 방과후학교는 학교를 입시학원화하고 정규수업 부실을 초래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 대다수 학생들은 원하지도 않는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에 얽매여 전인적, 창의적 발달을 저해 받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를 일부 교과목 교사 및 사교육업체들이 담당하고 있어 교사들 가운데는 과중한 수업 시수로 인해 정규수업은 소홀히하고 수당을 받는 방과후 수업은 열심히 가르치는 본말전도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 학생들 역시 정규수업에는 잠자고 방과후수업이나 사설학원 수업은 열심히하는 등 공교육 부실화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

정규수업은 학교가, 방과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도록 하여 교사들이 방과후 학생상담, 부진아 보충수업, 학생동아리활동 지도, 진로상담. 도서관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학교가 학생 교육을 책임지도록 하는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쇄신책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서울시의 교육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학교중심, 특히 방과후학교 지원, 영어교육 등에 치우쳐 비교육적 입시경쟁교육을 더욱 강

화하고 있으며, 일부학교의 경우 과다 재정지원으로 교사들의 업무가 과부하됨으로써 오히려 학교교육을 비정상화, 파행화시키고 있음. 학생의 선택과 바람을 존중하여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수업이 폐기된다 하여도 현재 청소년들은 방과후 사실상 갈 곳이 없는 현실 속에서 방과후 학생을 보호할 기관 및 지도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2. 주요사업

- 청소년 쉼터 및 놀이공간 운영: 식음료 및 먹을거리 염가 제공
- 동아리활동 발표 공간 및 연극, 영화, 밴드 등 지도
-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공: 역사 및 문화탐방
- 자원봉사활동 연결 및 운영
- 기업과 연계하여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기업 탐방
- 국내외 체험학습 연계
- 삶과 진로, 진학 상담실 운영
- 이탈학생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교방과후활동 모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기타 교사동아리 운영 및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 올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3. 추진방법

- 시민,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장 교육자문위원회'와 '아동,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추진단'을 구성한다.
- 아동청소년문화센터 설립 기획안을 공모하고 사업 범위, 지역을 확정하여 진행한다.

제안 2: 서울시립교양대학안

2년제 서울시립교양대학을 설립,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 기대효과

- 시립대학 반값등록금의 실현으로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줄여준다.

- 2년제 교양대학 교육으로 건강한 인격을 가진 인간, 더불어사는 사회인, 미래사회에 걸맞는 창의성을 가진 직업인을 양성하는 21세기형 교양교육대학의 모범을 창출함으로써 4년제 대학진학율을 낮춘는 데 기여한다.
- 청소년들이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입학할 수 있는 대학입학전형안을 제시하여 초중고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한다.
- 인문교양 위주의 2년 교육과정 수료후 일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제공, 대학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상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 부실 사립대학,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남게될 초중고시설을 이용, 시립교양대학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서울시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현황 : 거주주민이 많으면서도 전국의 학생이 몰리는 서울의 경우, 국공립대가 거의 없다시피하고 사립대학이 과다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시립대학을 신설하거나, 부실 사립대학을 인수하여 운영하여 학생들의 대학진학 욕구를 수용함으로써 국공립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오늘의 왜곡된 대학교육 현실을 개선하는 선봉장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시립대학은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양인문교육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교양전문대학으로 운영함으로써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학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서울시민 남녀노소 모두가 원하는 나이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문을 확대함으로써 명실공히 서울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함.
최근에는 정부도 대학교육협의회 내에 '교양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개인의 삶의 능력(인성) 및 취업능력(창의성)의 향상, 더불어 살아갈 민주시민능력(사회성)의 함양을 위해 교양인문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인문교양교육의 강화는 세계적 추세로 등장하고 있음.

2. 추진 방법

시민과 교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립교양대학설립위원회와 추진단을 위촉, 구성하고,
교양대학 설계도를 작성하여 추진함.
교양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학사운영 등 운영 전반을 위해 교양교육연구소를 설립함
<수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교양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컬리지와 대학교육협의회 산하 교양교육센터의 추진과정을 참작하여 추진함>

***** 별첨 경희대학교 휴마니타스컬리지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

- 다음 내용은 경희대 홈페이지, 휴마니타스컬리지에서 전문을 인용했음-

"대학에 들어온 젊은이들이 입학 당시보다 더 성숙한 인간, 더 나은 인간, 더 유용한 인간이 되어 사회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대학 교육의 본질 목적이자 존재 이유이며사회가 대학에 지워준 기본 책임임을 인지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대학에 교양교육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며 교양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이것은 대학이 늘 던져야 하는 기본 질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하지 않을 때 교양교육은 방향을 잃고 표류한다.
지금의 대학들은 이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대학 교양교육은 심각한 수준에서 표류하고 있다. 대학의 방향상실은 미래 세대의 운명에 불길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 전체에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학은 교양교육의 책임을 재확인하고 목표를 되찾아야 한다.

교양교육의 책임

교양교육은 대학의 존재이유와 목적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약한 초급학년 학부생을 주 대상으로 해서 그가 대학에 왜 들어왔는지, 대학은 무엇 하는 곳이며 그가 대학에서 길러야 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지에 관한 방향 잡아주기에서부터 그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사회와 문명에 지고 있는 책임은 무엇인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에 응답을 탐색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의 변화와 형성에 불가결한 성숙의 조건들을 최대한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것이 대학 교양교육의 임무이고 책임이다. 바로 이런 책임 때문에 대학은 신입생들이 입학 초기부터 한 가지 전공에만 몰입하게 하거나 입학하자마자 취업훈련부터 받게 하는 좁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 대학은 기계를 길러내지 않고 인간을 길러낸다. 협소성의 포로가 되기를 거부하는 교육이 교양교육이다. 영혼이 없는 탁월성은 탁월성이 아니다.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
–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양성

'아이가 어른 되는' 그 성숙의 조건들은 거대한 모험이고 도전이다.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는 그때까지 의존해왔던 부모, 학교, 선생님의 긴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립된 '정신의 삶'(life of the mind)을 시작해야 한다. 대학에서 그는 자기가 누구이고 타인은 누구이며 그가 사는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자신의 삶을 이끌 가치, 이상, 목적은 어떤 것일 수 있는지를 탐색해야 한다. 대학 입학과 함께 그는 자신을 책임지고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한다. 정신이 의존상태를 벗어나 독립의 단계로 이동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의식한다는 것은 성숙의 조건들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다수의 신입생들이 그 도전을 감당하지 못해 혼란, 방황, 도피에 빠진다. 이런 혼란과 방황이 장기화되면 4년간의 대학 생활은 큰 타격을 받고 헛되이 공전한다. 학부생이 대학의 도전에 잘 대응하고 즐겁게 응전하면서 자신을 변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끌고 지원하는 것,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 성원의 양성이라는 대학 교육의 본질 목적을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실현해나가는 것 – 이것이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이다.

교양교육의 최종 목표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 자기 생애를 이끌어 나갈 내적 견고성 함양

학부생의 성숙을 돕는 일이 교양교육의 기본 목표라면, 교양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한 인간이 삶의 불확실성 앞에서도 의미 있고 행복한 방식으로 자신의 한 생애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할 내적 견고성의 바탕을 길러주는 데 있다. 삶이 안길 수 있는 온갖 어려움과 영욕의 순간에도 한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고 의미와 가치를 공급해주는 것이 내적 견고성이라는 바탕이다. 이 바탕이 '교양'(culture)이다. 이 의미의 교양은 한두 해의 교양과정 학점을 따는 것으로 달성되지 않고 대학 졸업장이나 무슨 자격증 같은 것으로 획득되지 않는다. 교양은 대학 졸업을 위한 한시적 절차도 수단도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며, 교육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이다. 대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 가치, 교육의 최종 효과가 교양이다. 그 교양은 단순 지식이 아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들이 다 잊히고 다른 지식들로 대체되어도 여전히 내게 남아 나를 지탱하는 강한 힘, 대학에서 들은 강의의 내용들이 기억에서 사라지고 성공과 영광의 순간들이 다 지나갔을 때에도 여전히 내 몸에 남아 나를 지키는 무형의 자산, 그것이 교양이다. 세월이 바뀌고 삶의 외적 조건들이 바뀌어도 이 자산은 줄어들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더 성숙한 인간, 더 나은 인간, 더 유용한 인간을 최종적으로 정의해주는 것은 이런 의미의 교양이다. 예컨대 의사와 변호사와 경영인, 전문가와 정책입안자가 이런 교양의 인간일 때 그들은 분면 다 나은 의사이고 변호사일 것이며 더 나은 경영인, 전문가, 정책입안자일 것이다. 대학 교양교육은 그 궁극적 목표로서의 교양, 교육의 정점으로서의 교양을 망각할 수 없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양교육의 지향점

1. 인간, 사회, 자연, 역사에 대한 다각적 이해방식들을 폭넓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들의 관심대상, 접근법, 사유원칙들을 기본의 수준에서 이해하게 하는 교육,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주어 대학에서 자유롭고 창조적인 탐구활동과 정신 가꾸기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의 지향

2. 온갖 정보와 지식, 상충하는 진리 주장들, 상이한 가치관, 경쟁적 주장과 의견 등을 이성적으로 검토하여 오류와 편견을 가려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중요한 문제들을 찾아내며 합리적 설명, 타당한 주장, 설득력 있는 해석을 추구할 능력을 길러주고 과학적 사고습관을 함양하는 교육의 지향

3. 성찰의 능력과 습관을 길러주고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며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알게 하는 교육,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을 분별할 힘을 키워주며 자신이 사는 사회의 민주적 원칙들을 지키고 발전시킬 시민적 역량들을 터득하게 하는 교육, 계층과 신분, 종교, 지역, 성차 등의 벽을 넘어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는 능력, 선의와 배려와 공감의 공동체적 가치들을 체득하게 하고 봉사정신을 길러주는 교육의 지향

4. 유연한 상상력, 열린 정신, 지구사회적 마음가짐으로 두려움 없이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고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힘을 길러주는 교육,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적 경험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 인류 공통의 관심사를 인지함과 동시에 국적, 인종, 집단의 울타리를 넘어 지구사회 공통의 문제들을 풀어갈 세계 시민적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의 지향

5. 사건, 현상, 상징, 텍스트를 정확히 읽고 의미와 해석을 구성해내는 능력, 문서 생산력, 아름다운 것을 인지하고 평가하는 심미적 교감과 표현의 능력, 예술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예술적 창조성을 존중하는 능력,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사회의 역사적 경험들을 공유하게 하며 좋은 이야기의 사회적 유통을 촉진할 소통, 전달, 표현의 능력, 새로운 기술매체들을 유효하게 사용할 문화적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지향

경희대 휴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의 주요 과제

- 충실하고 성실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정책, 콘텐츠, 교수법, 평가 등 교육 소프트웨어의 지속적 연구와 개발

* 교양교육의 목적 수행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와 기획
* 중핵교과, 시민교과, 사회참여학습, 글쓰기, 배분교과 등 주요 교과영역에 사용될 고품질 *교육 콘텐츠(교재)의 기획과 제작
*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연구, 기획, 개발
* 대학의 교양교육내용을 사회에 개방하기 위한 동영상 및 다매체융합 콘텐츠 기획과 제작
* 교양교육 전문 학술지 발간 새로운 융합적 연구영역 개발
* 통합학문적 학제적 교양교육을 위한 국내외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샵의 운영
* 새로운 융합적 연구영역의 개발
* 교양교육 연구자료의 수집, 보존, 유통

“어린이・청소년도 서울시민이다”

- 어린이・청소년 시민이 행복한 서울시 만들기

1. 어린이・청소년 의회 설립

○ ‘프랑스 어린이 의회’의 모델처럼,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제안된 우수 조례안들을 의회에서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거나 서울시장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지금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으나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비중있게 검토되고 피드백되는 과정이 없었음. 또한 현재 주민발의 제도는 19세 이상 유권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예비 시민’이 아니라 ‘오늘의 시민’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음.

○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동티모르, 필리핀, 알바니아, 태국, 요르단, 그루지야 등 세계 각국이 청소년의회나 어린이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2. ‘어린이・청소년 행복 성장 지원 조례’(가) 제정

○ ‘어린이・청소년 행복 성장 지원 조례’(가)를 제정. 일본 가와사키 아동권리조례의 예처럼, 세계 각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참여와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현재 서울에서는 주민발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이 조례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에 불과.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등 학교의 외곽지대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과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장애아동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 기준 강화. 어린이집 보육교사, 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확대.

○ 탈학교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문화・진로체험 공간(예: 서울시립 직업체험학교 ‘하자센터’) 확대.

○ 작은 규모의 ‘동네 도서관’을 지역 문화와 인문학 배움터로 설립. 어린이・청소년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문화・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간 개방.

○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안심 일자리 창출, 노동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역별 모니터 시스템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 사업장’이 사라지도록 함.

(예: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와 ‘지역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수준의 고용을 제공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노동보호

지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이 위원회에 노동단체・청소년단체・교사단체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음.)

※ 이에 앞서 모법으로 '서울특별시 인권조례'를 먼저 제정(예: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이동권 조례, 어린이・청소년 행복 성장 지원 조례 등을 잇달아 제정하는 방식도 가능.